

교회소식

1.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비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 오늘은 St David's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09년 4월 19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11년 8개월 동안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 다음 주일(26일)부터는 그린레인 장로교회에서 오후 3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차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소: 211 Great South Rd, Greenlane, Auckland
(약도 후보 선교란 참조)
4.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오후 7시에 영상으로 드리며 이어 전야제 프로그램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각 공동체에서는 형편에 따라 24, 25일에 성탄 축하모임을 하셔도 좋습니다. 각 공동체와 선교회 혹은 성도 개인의 가정에서 준비한 성탄 전야제 영상이나 사진은 22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벽걸이 2부, 탁상용 2부씩 각각 가져가시기 바랍니다(이선주 집사 가정 제공).
6. 그린레인 장로교회로 성전이 옮겨가지만 계속해서 성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 예배 후에 교회 기구와 물품들을 벽돌 교회당으로 옮기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오늘 점심을 떡으로 섬겨주신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9. 2021년도 교회 수첩을 최광암 집사님(호주 시드니 거주)이 기증하셨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 당분간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December

교회사역일지

12월 5일(주일)
대림절 2
12월 12일(주일)
감사 주일
12월 25일(토)
성탄 예배
12월 26일(주일)
송년 주일

기도순서

12월 26일 (주일)
이정인 집사
12월 29일 (수)
가정 예배
1월 2일 (주일)
김병진 목사
1월 5일 (수)
가정 예배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정인,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 / 07 / 18

성탄주일

23권 51호 2021.12.19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 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찬양		주일 찬양단
Praise		
예배로부름	이사야 7:14, 요한복음 4:24	인도자
Call to Worship		
찬송	28장	다함께
Hymn		
참회의기도		다함께
Prayer of Repentance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찬송	287장	다함께
Hymn		
대표기도		손조훈 집사
Prayer		
성경봉독	누가복음 2:25-35	인도자
Scripture		
찬양대 찬양	영광, 영광을 주께	나무십자가 찬양대
Choir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설교	기다리는 자는 만난다	이태한 목사
Sermon		
찬송		다함께
Hymn		
헌금기도	126장	인도자
Offering		
교회소식		인도자
Announcements		
공동성경읽기		다함께
Closing Scripture		
응답송		다함께
Closing Hymn		
축도	171장 (1절)	이태한 목사
Benediction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Greenlane Presbyterian Church
211 Great South Road, Greenlane, Auckland 1051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12월 12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감사의 시작> 사무엘하 9:1-13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인정하게 되며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内村鑑三)와 솔제니친(Solzhenitsyn)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저주이며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8): 다윗은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7)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땅을 되찾아 므비보셋에게 주고 왕자로 대접하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었으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는 왕궁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례를(삼하 5:8)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이 위협을 무릅쓰고 은혜를 베풀 것을 알고 인정하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8). 우리의 영적 존재야말로 므비보셋의 처지와 같습니다. 초라하고 흉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었습니다(롬 3:24).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갈 3:13). 므비보셋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가 아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감격의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시 116:12).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대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인정할 때 감사드리며 살게 됩니다. 은혜는 대가가 아닌 선물이기에 잘 될 때나 건강할 때뿐 아니라 잘 안되고 병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모든 은혜를 인정할 때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2)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13): 므비보셋은 자기가 엄청난 은혜 받은 자임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누리게 된 것을 당연시하며 여호와를 원망한다면 이는 미련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잠 19:3). 우리도 때로 자신을 향한 연민과 원망으로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를 놓치고 잃어버린 채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해 보일 때 감사 대신 불평과 실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전 7:14)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경배 받으실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에 나의 모든 상황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인 것을 인정하며 감사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기에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고전 15:10)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 때에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은 결과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내 뜻이 아닌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됩니다.

감사에 인색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인정되는 삶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새로 옮겨가는 교회에 어린아이부터 장년 모두가 잘 적응하도록.
2. 한 주간 남은 대림절을 신실하게 성탄 하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3.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4. 세계의 지도자들이 Covid 19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도록.